

전남 이어 광주서도 AI 확진

전남은 물론 광주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전 통시장은 물론 식당, 소규모 농장의 오리에서까지 AI가 검출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신고 접수된 광주시 광산구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가축이 고병원성 AI H5N8형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고위험 지자체 10곳을 지정,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차량 정보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개 시·군·구는 모두 호남권으로 광주 광산구와 전남의 강진군, 곡성군, 나주시, 영암군, 장흥군, 함평군, 순천시, 담양군 그리고 전북 부안군 등이다. 이들 10개 지자체 농장 및 시설에 대해서는 매주 2차례씩 소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30일 전국 일제 소독에 나서고 다음달 2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전수검사를 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강진과 나주 소재 오리농장의 오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6월 10일 이후 3개월여만에 AI가 재발한 뒤 21일에는 광주 북구와 담양의 한 전통 시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이어

광산구 신창동 농장서

농장 반경 10km내

가금류 사육농가 이동제한

고위험 지자체 10곳 지정

당국, 오늘 전국 일제 소독

내달 2일 가금농장 전수검사

내달초 철새 도래 예의주시

22일 광주 농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광산구 한 농가의 오리에서 AI가 발생했다.

또 24일 역학조사 중 H5형이 검출된 담양 소재 가든형 식당에서도 26일 고병원성 AI H5N8형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의 식당은 유통상인으로부터 조리용 오리 11마리를 공급받았는데 이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에서만 6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이다.

광산구는 AI가 발생한 신창동 오리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닭, 오리 등을 기르는 가금류 사육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

고, 농장주·공무원 협동으로 강도 높은 예방을 나서고 있다. 전남도 역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도내 오리농장 460곳 가운데 개별 사용하는 110여 곳의 소규모 오리농장에 대해서도 방역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는 내달 초순부터 철새가 도래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대책과 농장주의 철저한 대비가 AI의 추가 발생을 막는 방법”이라며 “아직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추후 연구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0월 8일까지 축산차량의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6일 오후 7시를 기해 우리나라 전 연안에 내려진 적조 특보를 모두 해제했다. 올해 적조는 지난 8월 2일 경남 통영시 연안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남 진도군~경북 울진군 해역에서 대규모 적조가 창궐해 56일간 지속됐다. /윤현석기자 chadol@

화성 지면아래 물 품고 있는 층 존재 가능성

1면 ‘화성에 소금물 개천’서 계속

NASA는 현지시간 28일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29일 0시 30분) 워싱턴DC의 본부 청사에서 1시간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조지아 공과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인 루젠드라 오지하와 애리조나대의 엘프리드 매튜인 교수 등 이번 연구를 주도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들은 화성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일부 지역에서 계절에 따라 어두운 경사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이런 지형을 RSL(Recurring Slope Lineae)이라 칭했다. RSL은 폭이 5m 내외, 길이가 100m 내외인 가느다란 줄 형태며, 영하 23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생겼다가 그 아래로 온도가 내려가면 사라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연구진은 콘크리트가 물을 머금으면 색갈이 진해지지만 물이 마르면 색이 얼어지는 것처럼, 어두운 경사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RSL 현상도 물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간 명확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오지하와 매튜인 교수 등 연구팀이 화성 주변을 도는 화성정찰위성(MRO)에 장착된 분광계를 이용해 RSL에 염화나트륨과 염화마그네슘 등 염류 성분을 확인하면서 이 염류가 물을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염류 성분이 물을 액체 상태로 흐르게 하는 것, 즉 화성에 ‘소금물 개천’이 흐를 수 있는 원리는 눈이 오면 길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과학적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화성의 온도와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물에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 염류가 녹으면 어는점이 내려가고, 따라서 화성의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를 수 있게 된다.

화성에는 40억년 전에 큰 바다가 있었으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기후 변화로 표면에서 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우주인 출신이며 NASA 우주 탐사계획국 차장인 존 그랜스펠드는 “우리의 화성 탐사는 우주의 생명체를 찾아 ‘물을 따라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오래 의심해 왔던 바가 과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5년 전 RSL을 발견해 과학계에 보고한 데 이어 이번 논문의 제1저자 겸 교신저자를 맡은 오지하는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일단 주변의 습도가 올라가면 염류가 주변의 물기를 빨아들여 스스로 녹는 조해성을 지니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또 표면 아래에 얼음의 공급원이 있어서 이것이 염류와 접촉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녹는 것일 수도 있다. 아울러 화성의 지면 아래에 물을 품고 있는 층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내용은 28일(현지시간)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노벨상 시즌...문학상 10월 8일께 발표

우크라이나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유력... 고은 시인 9위

가을 바람과 함께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벨위원회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노벨상 수상 일정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의학·생리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6일), 화학상(7일), 평화상(9일), 경제학상(12일) 등의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노벨문학상 발표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 문학상은 목요일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면 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 유력 후보로는 우크라이나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가 부상했다. 알렉시예비치는 25일 현재 영국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레드브룩스에서 배당률 5대1로 올해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점쳐졌다. 알렉시예비치는 저널리스트 출신 작가다. 그가 창시한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 장르의 전지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작가는 수년간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해 모은 이야기를 논픽션 형식으로 쓰면서도 소설처럼 강렬한 매력에 있는, 말하

자면 ‘다큐멘터리 산문’을 쓰는 작가다. 대표작으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담은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새잎)가 있고 또 다른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문학동네)가 다음 달에 국내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매년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는 배당률 6대1로 2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하루키 열풍’을 일으킨 것은 물론 영미권에서도 두루 읽히는 작품을 여러 편 쓴 하루키가 만약 올해 수상자로 결정되면 일본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1994년 오에 겐자부로에 이어 세 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다. 하지만 2012년에 중국의 모옌이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만큼 올해는 아시아권을 비켜갈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한국의 고은 시인은 배당률 20대1로 공동 8위에 자리했다. 이는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25대1), 체코 작가 밀란 쿤데라(33대1)보다도 높은 자리다. /연합뉴스

여수 울촌면 봉전리 일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여수 울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에 정지인 여수 울촌면 봉전리 일원이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전남도는 29일 “여수시가 울촌산단 근로자와 은퇴자 등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울촌면 봉전리 일대 59만5600㎡(18만평)의 부지에 2020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울촌산단 배후택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가 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 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이 조망되는 위치에 조성될 배후택지 개발사업지구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도시, 쾌적한 전원으로 개발해 울촌제2산단, 울촌제3산단 입주업체 임직원 및 은퇴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9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민주사회장’추도식에서 진훈국이 펼쳐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직녀에게’ 문병란 시인 타계

지난 25일 타계한 문병란(1934~2015) 시인의 영결식이 29일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치러졌다.

조산대병원에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최근 췌장암이 악화돼 25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관련기사 16면>

29일 영수된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민주사회장’ 영결식은 추모단체 연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문인협회, 고인의 가족, 생전에 몸담았던 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 문과를 졸업했으며 1963년 대형 김현승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특히 그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으며 독재정권 시절 민족, 민중,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적잖은 시집들이 판매금지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결식에 앞서 오전에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에서 추도식과 추도공연이 열렸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장한국 광주시교육감이 추도사를 했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임원중이어서 문인 광주시행정부시장이 추도사를 대신했다. 가수 김원준은 고인의 시에 곡을 붙인 ‘직녀에게’를 불러 송고한 뜻을 기렸다.

시인에게서 국어를 배웠던 이지사는 추도사에서 “선생님은 민중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처절하게 직시했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꽃의 감성’과 ‘대쪽의 지성’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밝은광주안과 의원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